

## 두경부 악성종양환자의 진단 및 치료후 추적관찰에 있어서의 PET scan의 유용성

이장한\* · 심운상 · 이용식 · 이국행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배 경 :** PET scan은 두경부 악성종양의 조기진단과 원발 혹은 전이성 두경부종양의 치료후 추적관찰에 있어 CT나 MRI에 비해 매우 높은 민감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있다.

**목 적 :** 본 연구는 원발부위가 불분명하거나 초치료 후 재발여부가 불분명한 두경부 악성종양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에 있어 PET scan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97년 8월부터 '98년 7월까지 본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악성종양환자 5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을 크게 세 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제 1군은 원발부위불명암으로 진단되었던 5명, 제 2군은 초치료 개시전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촬영을 요했던 14명, 제 3군은 원발부위 치료후 추적관찰중 재발 내지 전이여부가 확실했던 38명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18 F-Fluorodeoxyglucose(18F-FDG) PET scan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제 1군 환자중 3명(60%)의 원발부위가 규명되었고, 제 2군 환자가운데 5명(35.7%)에서 원격전이 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이에 대한 평가 후 수술 혹은 항암치료여부를 결정하였다. 제 3군 환자들 중 18명(47.4%)에서 재발 내지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결 론 :** 1) 원발부위불명암의 경우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2) 초치료 시작전에 원격전이 및 국소전이여부를 판단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었다. 3) 원발부위치료후 추적관찰중 재발여부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4)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경부 후방에서 발생한 거대종물 치험 1례

유영삼 · 김영민 · 이종엽\* · 강무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경부 종괴는 전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흔한 질환으로 그 진단과 치료에 있어 연령, 종괴의 위치, 종괴의 성상, 종괴주위구조물 등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령은 출생시부터 15세까지를 소아기, 16세부터 40세 까지를 전반 성인기, 40세이후를 후반 성인기로 나눌 수 있고 각 연령 군에서 경부종물의 빈도는 소아기와 전반성인기에서는 염증성 종괴, 선천기형, 신생물, 외상성 종괴의 순이며, 후반성인기에서는 신생물, 염증성 종괴, 선천기형, 외상성종괴 순으로 알려져 있다. 종괴의 위치는 소아에서는 경부중앙과 중앙부, 전 반 성인기에서는 경부전삼각부, 후반 성인기에서는 경부후삼각부에서 흔하며 악성종양의 전이는 염증성병변과 비슷하게 임파배출로를 따른다고 알려져있어 이들의 감별시 유의해야 한다. 종괴에 대한 이학적 검사는 가장 중요한 진단 과정의 하나로 종괴의 위치, 크기, 주위조직과의 유착 유무, 또 다른 종괴의 동반성 유무, 종괴자체의 박동음이나 잡음 등을 살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종괴 뿐 아니라 두경부 전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서 진단적 내시경 검사, 조직생검, 각종 방사선학적 검사,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 조직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이 필요하다. 본원에서는 후반 성인기에 발생한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인 경부후방의 종물을 상기의 방법으로 진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절제, 합병증 없이 치유하였기에 문헌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 주타액선 종양 315예의 임상적 고찰

채명석\* · 김상호 · 백낙환

타액선 종양은 전두경부 종양의 3%미만 차지하는 종양으로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며 이에 따른 임상소견 및 치료방법도 매우 다르다. 저자들은 타액선 종양환자 315예의 임상적 분석 및 문헌적 고찰을 함으로써 향후 이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979년 6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만 18년 7개월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외과에서 수술한 타액선종양 315예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성별빈도, 임상증상, 종양의 병리학적 분류, 치료방법, 재발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환자의 연령분포는 30대에서 68세로 가장 많았으며 이하선 종양은 30대에서 56세로 가장 많았으며 악하선 종양은 30대에서 13세로 가장 많았다. 양성종양의 경우 30대가 61명(23.7%)로 가장 많았으며, 악성종양의 경우 50대가 14명(24.1%)로 가장 많았다. 성별분포는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147예(46%)로 남녀비는 1:1.2였다. 종양의 발생부위는 이하선이 245예(77%)로 가장 많았으며, 악하선 68예(21%)였다. 또한 전체 타액선 종양중 양성종양이 257예(82%)였으며 악성종양은 58예(18%)였다. 양성종양 257예의 발생부위는 이하선이 197예(76.6%), 악하선이 58예(22.5%)였으며, 악성종양 58예의 발생부위는 이하선이 48예, 악하선이 10예였다. 이하선 종양 247예중 양성 197예(80%), 악성이 48예(20%)였으며, 악하선 종양은 68예중 양성 58예(85%), 악성이 10예(15%)였다. 내원 환자의 증상은 서서히 자라는 무통성 종물이 주증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종물 발생 후 내원까지의 기간은 1년 이내가 44예(15.4%), 5년 이내가 164예(58%), 10년 이내가 43예(15%), 10년 이상이 34예(11%)였다. 종괴 발생 후 5년 이내에 내원한 경우를 살펴보면 양성 242예 중 155예로 64%였던 반면 악성의 경우 43예 중 33예로 77%의 높은 발생율을 나타냈다.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성종양이 257예(82%), 악성종양이 58예(18%)였다. 가장 많은 것은 혼합종으로 230예(75%)였으며 Warthin씨 종양 16예(5%)였다. 이하선 종양의 경우 총 247예중 양성종양이 197예(82%), 악성종양이 58예(18%)였으며 혼합종이 175예(73%), Warthin씨 종양이 14예(6%)였다. 악성

주타액선 악성종양58예의 AJCC분류법에 따른 병기별 분포는 이하선에서는 I기가 27예, II기가 10예, III기가 5예, IV기가 2예였으며, 악하선에서는 I기가 5예, II기가 1예, III기가 4예였다. 치료방법은 이하선 양성종양의 경우 25예는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123예는 이하선 전엽절제술을, 10예는 이하선 전절제술, 38예는 심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악하선의 양성종양 57예는 악하선 적출술, 1예는 상견갑설골 박리를 시행하였다. 이하선 악성종양 48예의 경우는 이하선 전엽절제술 7예, 전엽절제술 및 경부곽청술 16예, 전절제술 8예, 전절제술 및 경부곽청술 15예, 부분절제술 1예, 심부절제술 1예를 시행하였다. 악하선 악성종양 10예중 8예는 상견갑설골 박리를, 2예는 악하선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이하선 악성종양중 안면신경에 침습된 경우는 10예, 그 중 5예는 절제하였으며, 5예는 보존하였다. 술후 합병증은 안면신경손상이 18예, Frey's syndrome이 13예였다. 술후 재발은 이하선에서 10명, 악하선에서 6명이 재발하였다.

18

이하선 악성종양의 경부림프절 치료후  
치료실패양상  
- 경부림프절 절제술후 방사선치료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

이상욱 · 박정수\* · 김귀언 · 서창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연세암센터, 외과학교실\*

**목적** : 이하선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에서 이하선과 경부림프절을 동시에 제거한 후,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에 있어서 재발양상을 분석하여 경부림프절에 대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본 연세암센터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모두에서 생존유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단 1예를 제외한 50예의 환자를 추적하여 재발된 경우 재발양상을 확인 할